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기반 강화

전북대, QS 고등교육 정상회의 참가... 패널토론 참여·홍보부스 통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학 알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4~6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QS Higher Ed Summit Asia Pacific 2025'에 참가, 세계 고등교육 리더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세대의 잠재력을 이끄는 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과 협력'을 주제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QS CEO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주요 대학 총장과 고등교육 전문가,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기술 변화와 인구 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미래 세대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전북대는 행사 기간 동안 대학 홍보부스를 설치해 'On AI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의 비전과 연구·교육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특히 △글로벌대학30 사업 △피지컬AI 시범캠퍼스 조성 △남원 글로벌캠퍼스 국제화



지난 4~6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QS Higher Ed Summit Asia Pacific 2025'에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대학을 적극 알리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략 △JUC Triangle(대학-산업-도시 상생모델) 등 글로벌 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양오봉 총장은 행사 기간 중 QS CEO와 해외 대학 총장 등과 만나 국제공동연구, 교환학생 프로그램, 글로벌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우수 교원 유치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동현·윤명숙·이준화 부총장 등 본부 보직자들도 '도전의 시대 속의 변혁적 리더십', 'AI 중심 시대의 학생 유치', '대학의 인공지능 역

량 정량화',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등 QS 주관 세션에 참여해 AI와 지역 협력 중심의 고등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레이시아 UTAR(Universiti Tunku Abdul Rahman)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양 대학 간 △공공연구 및 학술교류 △교원 학생 파견 및 유학생 유치 △AI 및 지속가능성 분야 교육협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세계적 고등교육 트렌드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 및 교육산업 리더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국제적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양 총장은 "글로벌 고등교육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전북대학교는 AI와 지속가능성을 축으로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QS 등 국제기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복잡한 교육행정 정보

쉽고 빠르게 검색 가능

전북교육청,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교육행정자료 검색기 '최우수'

복잡한 교육행정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교육행정자료 검색기'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15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공개한 것. 이번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7건으로 5급 이하 지방공무원 5명, 교육공무원 1명, 기관 1건 등이다.

먼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분야에서는 △복잡한 교육행정 정보, '교육행정자료 검색기'로 쉽고 빠르게!(교육행정 8급 이재준)가 최우수로 뽑혔다.

이어 우수상은 △공감의 온도, 공감, 협력이 이룬 미래,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교육행정 6급 임대식), 장려상은 △교령 퇴직교직원도 쉽게! 안내 영상으로 회원가입을 '속삭' (교육행정 7급 이명준) △학부모도 안심, 학생도 안전-학교 승하차준 조성 (교육행정 7급 양우진) △학교 디지털 인프라, All-in-one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산 6급 김희정)이 각각 선정됐다.

교육공무원진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 실효성 제고: 절반의 성과에서 전면 관리로 도약(전주교육지원청 임상심)사 소성진, 기관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성 확보와 교원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민주시민교육과)이 차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은 지난 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지역아동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군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지원단은 올해 추진된 다양한 아동 돌봄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과 돌봄 품

질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과 '배움 섹션'에서는 아동 인권과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와 지역 현장 사례 공유, 정책 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소통 섹션'에서는 도내 종사자들이 각자의 활동을 소개하고 경험을 나누며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휴식 섹션'에서는 돌봄 종사자들의 재충전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을 병행, 호응을 얻었다.

김서현 운영위원장(전북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영 단장(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더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기증받은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라며 "NI Korea와 엔이스퀘어와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AI·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용성고, 2026 농업계학교

교육 지원사업 선정... 5억 확보

남원용성고등학교(송학득 교장)가 '2026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농업계교에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예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전국 농업계고 73개교 중 6개교가 선정, 전북에서는 남원용성고가 유일하게 선정돼 5억 원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실무능력 중심의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농업계고 재학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첨단실습시설 보완 및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남원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와 의미가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NI Korea

엔이스퀘어와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7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NI Korea(사장 정구환), 엔이스퀘어(대표 박준도)와 함께 AI 및 정밀 계측·분석·제어 자동화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강국 실현을 국가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전북대가 AI 융합 교육과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NI Korea와 엔이스퀘어는 전북대에 LabVIEW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볼륨 라이선스 200 카피(2년 구독형, 학생 설치 옵션 포함)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AI 및 PC 기반의 정밀 계측, 분석, 제어 자동화 등 첨단 공학 분야의 실습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이를 기반으로 AI 융합 트랙 실습환경을 고도화하고, 산학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협약 기관과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기증받은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라며 "NI Korea와 엔이스퀘어와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AI·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AI 전문기업과 AI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맞손'

전북대, NI Korea 엔이스퀘어와 협약



전북대학교가 지난 7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NI Korea, 엔이스퀘어와 함께 AI 및 정밀 계측·분석·제어 자동화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AI 강국 실현을 국가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전북대가 AI 융합 교육과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NI Korea와 엔이스퀘어는 전북대에 LabVIEW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볼륨 라이선스 200 카피(2년 구독형, 학생 설치 옵션 포함)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AI 및 PC 기반의 정밀 계측, 분석, 제어 자동화 등 첨단 공학 분야의 실습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이를 기반으로 AI 융합 트랙 실습환경을 고도화하고, 산학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협약 기관과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기증받은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라며 "NI Korea와 엔이스퀘어와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AI·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수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출발점

우석대, 17일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창립총회

우석대학교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AI 기반의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수소 기술 관련 산업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 전북 지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행사는 이흥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겸 원주수소연구원장의 '전북수소산업협의회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AI 기반 Physical Mobility 대응 전략(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이원용 에너지 MD·김태훈 팀장) △

Physical AI 기반 수소에너지 활용(고재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단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참여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과 패널토론이 진행, 수소 생산·유통·활용·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이번 총회는 지역 수소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석대학교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전북 수소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6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 공고

전북교육청, 대상자 선발 절차 돌입... 총 80명 예정

교육정책 중심 자율·정책연구 수행... 17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공고, 대상자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3명, 초등학교 51명, 중등학교 26명 등 총 80명이다.

전북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수업혁신 및 학생생활지도,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 능력 등을 평가해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특별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는 오는 17일 오후 4시까지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분청 교원인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립유치원 교사와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로 실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장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도내 학교 근무 실교육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국·사립학교 재직 교사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1차 적격여부 심사, 2차 연구수행능력 심사, 3차 학교교육 기여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 최종 연수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도내 4년제 대학과 정책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활성화를 위해 연구과제를 다양화하고, 1인당 연구활동비를 4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수업·학습 및 학교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능 절대평가 전환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사진, 이하 새참교육)이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절대평가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새참교육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시험을 치르길 바란다 △점수가 아닌 사람을 응원한다 △절대평가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과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에게 온 박수를 보낸다

노병섭 대표는 "수능은 시행이래 상대평가를 20여년 간 고수해왔다"며 "2017년부터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이슈로 떠올랐다. 경쟁 완화와 학생들

의 학업 부담 감소 등 절대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의 차이로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사회 모두가 공정한 평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능은 단 하루의 시험이지만, 그날을 준비해 온 학생들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길었다며, 어른으로서 학생의 노력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호텔경영학과 학생 채용 면접

콘래드 싱가포르 본사 인사팀, 전주대에 오다

호텔경영학과 학생 채용 면접

세계적 호텔 브랜드 힐튼(Hilton)의 최상위 브랜드인 콘래드(Conrad) 싱가포르 본사 인사팀이 지난 6일 전주대학교를 찾아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

전주대에 따르면 이날 면접에는 인사부장 Abdul과 인사매니저 Su Ling Choo가 직접 참여해 콘래드 센테니얼 싱가포르와 콘래드 오차드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인재를 선발했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381명의 해외취업 성과를 거뒀다. 취업 국가는 싱가포르, 캄, 베트남



남, 사이판, 뉴질랜드, 두바이 등으로, 학생들이 다문화 환경에서 실무 역량과 글로벌 서비스 감각을 체득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영어트랙(English Track)'을 본격 시행하면서 영어권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